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19, pp.35-79
<https://doi.org/10.29212/mh.2021..119.3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戰間期 太平洋지역 美·日 간 해군력 경쟁*

정광호**

1. 서 론
2. 해양강국 일본의 등장
3. 일본의 對美 해양전략 : 차단·소모(邀擊漸減,
Interception-attribution) 전략
4. 미국의 對日 해양전략 : 오렌지·레인보우 계획
5. 결 론

1. 서 론

2021년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1941년 12월 7일)으로 시작된 ‘태

* 이 글은 정광호, 『미국의 태평양 해양전략 전개에 관한 연구: 도전국가의 핵심해양 공간 진출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51-170쪽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조교수

평양전쟁' 발발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태평양전쟁은 19세기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강대국으로 성장하여 아·태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했던 일본과 아메리카대륙 통합을 계기로 태평양으로 진출하여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미국과의 태평양 패권을 둘러싼 해양강대국 간의 전쟁이었다. 청일전쟁(1894년)과 러일전쟁(1904)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만, 펑호제도(澎湖諸島)¹⁾, 사할린, 만주, 한반도 등에서 지배권을 확보하였고,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으로써 아·태지역의 제해권을 확보하면서²⁾ 근대 아시아국가 최초의 해양강국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19세기 미국은 대서양 국가에서 태평양 국가로의 체질 개선이 진행 중에 있었다. ① 나폴레옹 전쟁(1797~1815) 시 영국이 프랑스와의 중립적인 무역을 막기 위해 실시한 해상봉쇄는 그 당시 중립적 위치에 있었던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결국 영국과의 '1812년 전쟁(1812~1815)'으로 전개되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의 해군력은 영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했으나, 미 해군의 효율적인 함대 전술운용을 통해 영국으로 하여금 미국 연안에서의 해양통제권을 상실하게 만들었다.³⁾ ②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 통합은 태평양을

1) 펑호제도(澎湖諸島, Pescadores)는 타이완 서쪽 약 50km 떨어진 군도이다. 19세기 서방세력이 타이완 섬을 노리게 되자, 이 군도는 다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다. 1884~85년에는 프랑스가 점령했으며, 청일전쟁(1894~95) 뒤에는 타이완과 함께 일본으로 넘어갔다. 1945년 중국에 반환되어 타이완에 속한 진(鎭)이 되었으며, 1950년에는 타이완섬에 속한 현(縣)이 되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Penghu>. (검색일: 2021. 2.20.).

2)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 후 베르사유 조약(1919)에 의해 서태평양의 지배국가로서 마셜(Marshalls), 캐롤라인(Carolines) 및 마리아나 군도(Marianas) 등 적도 이북의 남양제도에 대한 위임통치를 인정받게 된다. 정호섭, 『해양력과 미·일 안보관계』,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1, 22-24쪽.

3) 1821년 전쟁이 종료된 후 주미 프랑스 대사를 역임했던 루이 세뤼리어(Serurier)는 "이제 미국은 해군국(Naval Power)"이 되었다. 앞으로 10년 내에 미국은 자국의 해역 및 태평양까지 바다의 주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John W. Chambers, *American Military History*(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486.

건너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이 되었다.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영토 매입(1803), 미국·멕시코 전쟁(1846~1848)을 통해 텍사스, 캘리포니아, 오리건 영토 확보⁴⁾, 그리고 스페인과의 전쟁(1898)⁵⁾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 대규모의 식민지를 확보함으로써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본격화 하였다.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하와이, 필리핀, 괌 및 웨이크 섬(하와이 서쪽 2,000마일 위치)에 이르는 하나의 거대한 태평양 제국을 건설하였고, 강력한 해군력을 정비하기 시작하였으며 1908년에는 하와이 진주만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였다.⁶⁾ 미국의 태평

-
- 4) 제11대 대통령인 포크(James K. Polk, 재임기간 1845~1849) 대통령은 멕시코 전쟁을 통해 거의 311만 제곱킬로미터나 되는 땅을 획득했고, 이로 인해 미국은 1803년 루이지애나 획득 이후 국토가 두 배로 확장되었다. 이는 프랑스와 영국을 합친 것보다 열 배나 큰 규모였다. 한편 인구는 영토보다 빨리 늘어났는데 1800년에 530만 명이었던 미국 인구가 1812년에는 725만명, 1850년에는 2,300만 명으로 늘었고, 이 증가 수의 1/5 정도가 서부 이민에 따른 것이었다. 미국·멕시코 전쟁에서 미 해군은 빠른 군함과 강력한 포격을 지닌 가장 뛰어난 군대였다. Bruce Cumings, *Dominion from Sea to Sea: Pacific Ascendancy and American Power*(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0), p.146; D. W. Meinig, *The Shaping of America: A Geographical Perspective on 500 Years of History. Vol. 3, Transcontinental America, 1850-1915*(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8), p.209-222.
- 5) 미국과 스페인과의 전쟁은 1898년 2월 15일, 쿠바 아바나 항구에서 미 군함 메인(Maine)호가 폭침되어 266명의 사망자가 발생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898년 4월 25일 미 의회는 선전포고를 했고 5,000만 달러를 지원하자 제25대 대통령인 맥킨리(William McKinley, Jr., 1897~1901)는 스페인 함대를 공격하였다. 4월 30일 나가사키에 있던 아시아함대 지휘관이었던 듀이(George Dewey) 제독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스페인 함대를 선제공격하여 승리를 함으로써 400년에 걸친 필리핀의 스페인 지배를 끝냈다. 1899년 12월 21일 맥킨리 대통령은 미국이 필리핀 전체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다. Ivan Musicant, *Empire by Default: The Spanish-American War and the Dawn of the American Century*(New York: Henry Holt, 1998), pp.137-140.
- 6) 1898년 미국과 스페인전쟁 이전만 해도 미 해군은 체계화된 전쟁계획 없이 전쟁을 치렀다. 이후 1884년 미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이 창설되면서 유능한 해군장교들에게 전략과 과학적인 전쟁술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고 마한 제독이 제 2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이 당시 미 해군 지도부는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운명과 제국주의적인 영향력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국부

양 지역의 국가전략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팽창주의 억제, 필리핀의 독립 보호, 미국의 무역상들에게 중국 시장의 개방, 동남아시아의 원자재에 대한 미국 통상로 개방이었다.⁷⁾ 이러한 미국의 국가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일본이었고,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점점 더 커져가면서 양국 간의 관계는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양국은 아태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 이것은 곧 양국 간의 해군력 경쟁으로 나타났다.

태평양 전쟁 발발 80년 후인 2021년, 태평양지역은 또 다시 강대국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이 지역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 안보적 분야 등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강대국 간의 경쟁에서는 항상 정치적으로 전략을 수반하는데,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⁸⁾,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One Belt One

의 원천으로서 해상교역과 강력한 함대 그리고 해외기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공격적인 기질의 대영제국 해군을 그들의 모델로 삼아 미 해군이 추구해야 할 전쟁목표는 완전한 승리라고 믿었다. 이러한 미 해군의 전통적인 사고는 그 후 수립되는 ‘오렌지 계획(War Plan Orange)’의 토대가 되었고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해군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해양전략의 원동력이 되었다. James W. Hammond, Jr., “We are Products of 1898,” *Proceedings*(Aug. 1998), pp.60-65.

7) D. Clayton James, “American and Japanese Strategies in the Pacific War,” Peter Paret, ed., *Makers of Modern Strategy: From Machiavelli to the Nuclear Age*(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709.

8) 인도-태평양 구상은 2007년 인도를 방문한 아베총리가 ‘두 바다의 교류(Confluence of the Two Seas)’란 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최초로 구상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시 양 국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의 추진에 합의하였고, 2017년 12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명시되면서 미국의 공식적인 아태전략으로 설정되었으며, 2018년 5월에는 하와이에 있는 미 태평양함대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변경하였다. 이 전략문서는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상정하였고, 아태지역의 다른 나라들과 함께 중국의 지역 패권을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제시하였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Confluence of the Two Seas,” Speech by H.

Road Initiative)⁹⁾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이 양 전략 간의 충돌은 미국의 ‘국제 공역에 대한 접근 및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JAM-GC; The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¹⁰⁾과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 access/Area denial)¹¹⁾의 해양전략간의 대결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여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안보와 번영을 막아 미국의 질서에 도전하는 ‘현상변경국가(revisionist power)’라고 명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중국의 도전을 억제하고 있다.

역사학자 카(Edward Hallet Carr)는 역사 연구는 “원인의 연구이고, 한 시대가 다른 시대 속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일

E.Mr. Shinzo Abe, Prime Minister of Japan at the Parlia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August 22, 2008.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pmv0708/speech-2.html>(2021.2.23.);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http://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2021.2.23.).

- 9) 일대일로(一帶一帶, One Belt and One Road)는 육상실크로드인 일대(一帶)와 해상실크로드인 일로(一帶)를 의미한다. 일대일로정책은 5통(정책, 도로, 무역, 화폐, 민선)과 친성혜용(親誠惠勇: 친밀, 성실, 혜택, 포용) 원칙에 따라 지역경제 일체화와 문명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세계전략이다. 시진핑은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에서 실크로드 경제지대건설을 발표하는데 이어 동년 10월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에서 21세기 해양실크로드를 재의하여 일대일로 구상을 세계에 알렸고, 2013년 제18기 3중 진회에서 일대일로를 국가정책으로 공식 채택하였다. Shannon Tiezzi, "What Did China Accomplish at the Belt and Road Forum?," *The Diplomat*(May, 2017).
- 10) JAM-GC는 최초 중국의 A2/A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인 공해전투(Air-Sea Battle) 개념의 후속 전략으로 중국과 충돌시 육·해·공·해병대를 포함한 다중의 전력을 통해 미국 재래식 전력의 접근 및 전력투사 능력을 향상시켜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개념이다. Michael E. Hutchens et al.,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A New Joint Operational Concept," *Joint Forces Quarterly*, vol.84(2017), p. 136; Pentagon Drops Air Sea Battle Name, *Concept Lives On*, <http://news.usni.org>(2021.2.22.); New US Concept Melds Air, Sea and Land, <http://www.defensenews.com>(2021.2.22.).
- 11) ① 반접근(A2, anti-access) : 주로 장거리 능력에 의해 적어 특정 작전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는 능력, ② 지역거부(AD, areal denial) : 반접근 능력보다 상대적으로 단거리 능력에 의해 작전 영역 내에서 적군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능력, 해군전략분석시험평가단, 『2019 주변국 해군 편람』, 계룡: 전평단, 2019, 89쪽.

들에 관한 기록이자,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했다.¹²⁾ 현재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이 약 100여 년 동안 유지했었던 패권적 지위에 중국이 도전장을 던지고 있고, 이것은 해군력 경쟁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약 100여 년 전 미국이 태평양 지역의 패권국 위치에 올라서는 계기가 되었던, 태평양전쟁과 그 이전의 미일간 해군력 경쟁 과정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태평양 해양전략에 관한 기존 연구는 거시적 관점이 아닌 미시적 관점에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즉, 시대별 각각의 사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시 태평양 전쟁에 관한 연구는 태평양 전쟁의 원인¹³⁾과 미일의 군사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¹⁴⁾ 특히 미일간 역학관계에 의한 해군력 경쟁에 대한 비교분석 내용은 미진한 편이다.

두 번째는 연구의 대부분이 해전 승패 등과 같은 전쟁사적 결과에 치중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전쟁의 세가지 분석 수준 중 전략적 수준이 아닌 작전적, 전술적 수준에서 분석을 통해 해양력의 우수성을 증

12) E. H. Carr, 박종국 역,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육문사, 2007, 84쪽, 134쪽.

13) Akira Iriye, *The Origins of the Second World in Asia and the Pacific* (London: Longman, 1987); Jonathan G. Utley, *Going to War with Japan, 1937-1941*(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85); Herbert Freis, *The Road to Pearl Harbor: The Coming of the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0); Stephen E. Pelz, *Race to Pearl Harbor: The Failure of the Second London Naval Conference and the Onset of World War II*(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Akira Iriye, *Power and Culture: The Japanese-American War, 1941-1945*(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참조.

14) Edward S. Miller, *War Plan Orange: The U.S. Strategy to Defeat Japan, 1897-1945*(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1); Yoji Koda, “A Commander’s Dilemma: Admiral Yamamoto and the ‘Gradual Attrition’ Strategy,” *Naval War College Review*, 46:4(Autumn 1993); Tsunoda Jun “The Navy’s Role in the Southern Strategy,” trans. Robert A. Scalapino, in James William Morley, ed., *The Fateful Choice: Japan’s Advance into Southeast Asia, 1939-1941*(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Clayton James, “American and Japanese Strategies in the Pacific War,” in Peter Paret, ed., *Maker of Modern Strategy: From Machiavelli to the Nuclear Age*(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참조.

명하려고 노력하였다.¹⁵⁾ 따라서 전략적 수준에서 미일간 해양전략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된다.

본 연구는 태평양전쟁 발발 이전 미일간 해군력 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그 과정을 분석하였다. 먼저 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 국가 최초로 강대국으로 등장한 일본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이후 미국의 태평양 진출을 통한 일본과의 대립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일간 해군력 경쟁이 어떠한 해양전략 간의 대립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2021년 현재에 주는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해양강국 일본의 등장

가. 사토 테츠타로(佐藤鐵太郎)¹⁶⁾의 해양국가론과 근대 일본의 해양전략 형성

러일전쟁 승리를 통해 강대국의 일원으로 진입한 일본은 제국의

15) 전략(Strategic)적 수준이란 일반적으로 부대의 기동(mobilization of forces), 부대의 다른 작전(different campaigns) 또는 분쟁의 다른 전구(theaters of conflict)로의 할당 등과 같은 궁극적으로 전쟁의 목표(ultimate war goals)를 이루기 위한 결정적 수준, 작전(Operations)적 수준이란 전투를 유리한 입장에서 싸우도록 하기 위하여 전구 내에서 군사력의 기동(the movement of forces)에 관한 것, 전술(Tactics)적 수준이란 전투를 승리하기 위하여 특정한 전투 내에서의 취해야 할 행동에 관한 것이다. Edward N. Luttwak, *Strategy: The Logic of War and Peace*(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pp.69-70; Ted Hopf, "Polarity, the Offense-Defense Balance, and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0:2(June 1991), pp.475-93.

16) 사토 테츠타로(佐藤鐵太郎; Sato Tetsutaro, 1866-1942)는 근대 일본 해군전략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략가이다. 사토는 청일전쟁 이전 16세기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해양작전에 대한 연구로 '국가방위에 대한 연구(國防私說, Personal opinions on national defense)'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1910-12년 해군대학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일본 해군주의의 바이블인 '제국국방사론(帝國國防史論)'을 저술하였다. 이 기간 동안 사토는 가상적 미국에 대한 '가상적 해군표준(hypothetical

위상에 걸맞는 국가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사토 테츠타로(이하 사토)의 해양국가론에 대한 주장은 근대 일본 해양전략 형성의 출발점이었다.

러일전쟁 참전 후 1906년, 해군대학 교관으로 부임한 해군대좌 사토는 수업 담당과목인 ‘국방사론(國防史論, On the History of Naval Defense)’의 강의록을 종합하여 ‘제국국방사론(帝國國防史論, On the History of Imperial Defense)’을 편찬하였다. 여기서 사토는 일본과 같은 섬나라는 ‘해방(海防, seaborne defense)’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적인 대륙 지향적방어가 아닌 해양지향적인 공세적방어전략¹⁷⁾을 구사할 수 있는 해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¹⁸⁾ 그러면서 사토는 일본 본토 방어를 위해 ‘5선 해상방어구역’ 수립을 제안했다. 제1선은 적국해안(敵

naval standard)과 미국의 해군력과 비교한 70%라는 ‘고정된 톤수 비율(a fixed tonnage ratio)’에 대한 이론을 주장하였다. 후일 소화천황이 되는 히로히토 황태자 해군분야의 군사학 교관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David C. Evans & Mark R. Peatti, *Kaigun: Strategy, Tactics and Technology in the Imperial Japanese Navy 1887-1941*(Maryland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7), p.533.

- 17) 조미니는 방어가 현명하게 수행된다면 공격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방자는 지형, 장애물 운용, 국민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공자보다 유리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공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한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올 경우 방자는 각개격파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조미니는 방어가 피동적인 작전이 아니라 적시에 적절하게 적에게 공격을 가하는 능동적인 형태의 작전 즉, 공세적 방어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세적 방어는 방어를 위주로 하면서 공세적인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공격 및 방어의 이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어의 한 형태로써 자국의 영향력 내에서 작전한다는 방어의 이점을 누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적을 공격함으로써 주도권을 장악하는 공격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개념은 클라우제비츠의 ‘방어시의 기습’과 유사하며, ‘전략적 방어, 전술적 공격’을 표방하는 마오쩌둥의 ‘적극적 방어’개념과도 유사하다. John Shy, “Jomini,” ed. Peter Paret, *Makers of Modern Strategy: From Machiavelli to the Nuclear Age*(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p. 145-146; Byron Dexter, “Clausewitz and Soviet Strategy,” *Foreign Affairs*, 29:1(October 1950) p.53.

- 18) 佐藤鐵太郎, 『帝國國防史論(上)』, 東京: 原書房, 1979, 197쪽.

海, the enemy's seas), 제2선은 공해(洋上, high seas), 제3선은 근해(近海, territorial waters), 제4선은 해안(海岸, coasts), 제5선은 국내(國內, ports)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강력한 해군력을 건설하여 제1선인 적국 해안에서부터 적의 접근을 거부하여 제해권을 장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⁹⁾

사토는 선진 해군을 따라잡기 위해 무제한적인 해군력 증강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상정적국(想定敵國)²⁰⁾, 즉 가상적을 선정하여 그 국가의 해군이 어느 정도까지 태평양 지역에 함대를 파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에 대비하는 해군증강의 최저 표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토는 미국을 가상적으로 설정하였고, 미국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해군력 대비 70%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였다. 공격함대가 방어함대를 화력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50%의 우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방자는 공자에 비해 70%의 해군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방자가 공자의 해군력 대비 60%의 해군력을 보유한다면 국가방위에 큰 안보위협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¹⁾ 그리고 이 시기는 해군 함정의 연료가 석탄에서

19) 佐藤鐵太郎, 『帝國國防史論(上)』, 218-220쪽.

20) 상정적국의 정의는 마한이 언급한 “해군전비태세의 기준은 가장 위험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것을 대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금언을 반영한 것으로, 일본 해군 전략가들은 가상적을 “우방이든 적이든 대규모 군사력으로 일본과 대치할 수 있는 어떤 강대국”이라고 정의하였다. Asada Sadao, “From Washington to London,” in Erik Goldstein & John Maurer, ed., *The Washington Conference, 1921-22: Naval Rivalry, East Asian Stability and the Road to Pearl Harbor* (Routledge, 1994), p.148; 佐藤鐵太郎, 『帝國國防史論(上)』, 228쪽.

21) 사토는 미국의 함대가 태평양, 대서양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군력의 집중이 분산된다고 보았고, 아시아로까지 진출하기 위해서는 태평양을 횡단해야 하기 때문에 필리핀 방어를 위한 지정학적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사토는 공자(攻者)의 1.5:1의 우세는 방자(防者)의 0.67:1(67%)의 열세와 동등하다고 하였다. 만약 방자가 0.67의 비율보다 적은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자에 대한 승리의 가능성은 낮아진다. 한편, 0.67의 비율보다 높으면 공자에 대한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토는 방자가 0.67보다 다소 높은 70%의 비율이 공자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비율이라고 했다. Bradley A. Fiske,

석유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그리고 함포의 능력 향상, 사격 통제장치의 발전, 함포 사거리 증가 및 함정 건조 능력 향상 등 일본 해군 무기체계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었다.²²⁾

나. 제국국방방침(帝國國防方針)과 해양전략의 발전

사토의 공세적방어전략이 해군의 관점에서 추진된 근대 일본 해양전략 발전의 시발점이었다면, 1907년 4월 제정된 ‘제국국방방침(帝國國防方針, Imperial defense policy)’은 일본의 육·해군이 국가안보 위기 시 합동작전의 필요성으로 인해 러시아(일본 육군의 가상적)와 미국(일본 해군의 가상적)을 공식적인 가상적으로 설정한 최초의 국가전략 문서이다.

제국국방방침은 ① 일본제국의 국방방침, ② 제국군의 용병강령, ③ 국방에 필요한 병력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일본제국의 국방방침에서는 국권의 확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 제시되었고, 특히 러일전쟁을 통해 획득한 한반도와 만주에서의 이권, 아시아 남방과 태평양 연안에 팽창하는 민력(民力)의 발전을 옹호·확장하는 것을 제국 시정의 방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국권을 침해하려는 국가에 대해서는 공세적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또한 가상적국으로서 러시아(육군)와 미국(해군)을 설정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하여 일본의 군비증강을 주장하였다. ② ‘제국군의 용병강령’에서는 일본의 군사

“American Naval Policy,”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31(January 1905), pp.17-24, 49-53.

22) 해군 무기체계의 발전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Norman Friedman, *Battleship Design and Development, 1905-1945*(New York: Mayflower Books, 1978), p. 91; Antony Preston, *Battleship of World War I: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he Battleships of All Nations, 1914-1918*(New York: Galahad Books, 1972), p.113 참조.

전략은 공세적이어야 하며, 해군은 적의 함정을 제압하고, 육군은 신속하게 선제공격을 실시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③ ‘국방에 필요한 병력’에서는 육군은 평시 25개 사단, 전시 50개 사단, 해군은 미 해군력의 70% 비율에 해당하는 전함 8척 및 순양함 8척의 건조를 목표로 하는 ‘8·8함대’ 완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²³⁾

이후, 제국국방방침은 제1차 세계대전 후 1차 개정(1918), 워싱턴 조약에 조인 후 2차 개정(1923), 해군 해군축조약(the naval limitation treaties) 탈퇴 후 3차 개정(1936)을 하였다.²⁴⁾ 1917년 7월 26일, 내각회의에서 해군대신 가토 도모사부로(加藤 友三郎)는 “미국을 제1의 가상적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했다. 가토의 선언과 ‘8·8함대’의 계획은 미국의 건함계획과 맞서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²⁵⁾

23) 러일전쟁은 ‘6·6함대’는 전술적으로 불균형한 함대구성이고, ‘8·8함대’가 지휘·통제에 효율적인 함대 구성임을 증명하였다. 1898년 독일 티르피츠의 첫 번째 해군 법안(전함 19척 구성)이 일본 8·8함대 개념 구상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1900년의 두 번째 법안이 전함 8척 개념의 구체적 모델이 되었다. 거함거포주의를 기본 개념으로 하면서 20,000톤급의 드레드노트급 전함 8척, 18,000톤급의 근대화된 무장순양함 8척 등으로 구성된 해군력 건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의 8·8함대의 기원이다. 사토는 미국 해군력의 70%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8·8함대의 건설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고, 1907~1922년까지 일본 해군정책의 핵심개념이 되었다 Holger Herwig, *“Luxury” Fleet: The Imperial German Navy 1888–1918*(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80), p.42.

24) David C. Evans & Mark R. Peatti, *Kaigun: Strategy, Tactics and Technology in the Imperial Japanese Navy 1887–1941*, p.149.

25) 1907년 이후부터 미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보기 시작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지배적인 지위는 태평양에서 접근하는 미 함대를 격파할 수 있는 해군력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일본은 8·8함대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것은 제 37회 제국의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1917년에 8-4함대, 1918년에는 8·6함대, 1921년부터는 8·8함대를 보유하는 계획을 세웠다. 일본의 해군확장이 국제여론의 비판을 받아 제1회 국제연맹총회에서 일본대표는 8·8함대 계획은 미국의 해군력확장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영국의 해군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이 현저히 부상하자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해군력 증강은 태평양에서 미일의 군사적 경쟁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John H. Maurer, “Arms Control and the Washington Conference,”

한편 1917년, 일본은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對日해양전략(오렌지 계획)’에 대해 어느정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20년 10월, 일본 정부는 ‘대일도양작전(對日渡洋作戰)’ 이라는 극비문서를 확보한다. 이 문서는 ‘미 해군이 태평양을 횡단하여 일본을 공격하는 작전계획의 초안으로, 서태평양에서 미 해군의 주력함대가 일본에 앞서고, 해상봉쇄를 위해 일본의 해상교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미일 해군력이 최소한 3:2 정도의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고 제시하였다.²⁶⁾

1918년, 일본은 ‘전략대강(戰略大綱)’을 작성한다. 이 계획의 핵심은 대미 전쟁 발발 시, 먼저 필리핀 루손(Luson)에 있는 미 해군기지를 장악하고 동시에 일본 주력 함대는 서태평양에서 접근하는 미 함대를 ‘차단(interception)’²⁷⁾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전에 의해서 미

Diplomacy & Statecraft, 4:3(1993), pp.271-272; 8·8함대의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Roger Dingman, *Power in the Pacific: The Origin of Naval Arms Limitation*(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pp.51-52, 60-63, 122-127 참조.

26) Asada Sadao, “The Revolt against the Washington Treaty: The Imperial Japanese Navy and Naval Limitation, 1921-1927,” *Naval War College Review*, 46:3(Summer 1993), pp.83-84.

27) 일본은 미국의 대일 전쟁계획 시나리오를 예측함에 있어서, 미국의 주력함대가 태평양을 통과하는 주 교통로로 하와이로부터 남태평양의 길버트제도, 괌, 필리핀 마닐라를 거쳐 기동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첫 번째 작전은 일본이 위임 통치하고 있는 미크로네시아 섬(마셜제도, 캐롤라인제도, 마리아나제도)들을 포위하여 일본의 해상 방어구역을 무력화시키고, 마지막으로 일본 내해에 대해 공세적 작전을 펼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것이 일본의 ‘차단작전(interception operations)’에 대한 근거가 되었다. 1918년 제1차 제국국방방침의 수정과 용병강령의 개정 시 대미전쟁의 경우는 육·해군 공동으로 필리핀을 점령하게 되어 있었지만, 제2차 개정 시에는 대미 전쟁 개전 초, 괌을 점령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국방방침, 소요병력, 용병강령의 개정에 따라 육·해군의 연도 작전계획도 대미전쟁을 상정하여 세워졌다. 이 계획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1926년도 작전계획에서였다. 여기서는 미일 해군 주력 결전은 개전 후 45일 전후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앞서 필리핀의 마닐라, 카비테군항 등을 점령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 작전을 위해 육군은 상설 3개 사단을 운용하고, 상륙작전의 훈련을 위해 참모총장으로부터 특히 제 5, 제 11, 제 12 사단에 훈련이 하달되었다. Asada Sadao,

해군을 격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²⁸⁾

1923년 2월, 제2차 제국국방방침이 개정되었다. 이 시기는 1922년 워싱턴 해군군축조약이 체결되었고, 조약해군으로서 군축을 이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개정되었다.²⁹⁾ 하지만 일본은 워싱턴체제 하의 조약해군이라는 제약에서도 대미 전쟁계획을 발전시켰다. 일본은 미국과의 분쟁 시 차단작전에 들어가기 전 ‘소모전략(attrition strategy)’ 개념을 추가시켰다. 이 전략은 일본 잠수함이 태평양에서 전진 배치하여 미국의 주력함대 접근을 사전에 거부시키는 전략 개념이다. 즉, 해군 기술과 무기체계의 발전으로 일본의 해상작전 환경이 넓어졌고, 잠수함이 대미 작전 시 주요 무기체계로 등장한 것이다.

워싱턴체제에 의해 주력함의 건조 비율이 ‘미국: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5:5:3:1.67:1.67)’이라는 군축의 제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잠수함, 순양함 등 보조함의 발전을 통해 대미 전쟁 계획을 구체화 시키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것은 아·태 지역에서의 워싱턴체제를 통해 현상유지 정책을 유지하고자 했던 미국에 도전하기 위한 일본의 지속적인 준비과정이었다.

“The Revolt against the Washington Treaty: The Imperial Japanese Navy and Naval Limitation, 1921-1927,” pp.90-93.

28) 이 국방방침에서 대 러작전의 중점은 바이칼호 이동의 거점을 점령하는 것이었고, 대 중국작전의 중점은 중국에서의 권익과 일본인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병력을 재배치한다는 것이었다. Asada Sadao, *Ibid.*, p.150.

29) 제국국방방침의 1차 개정 시에는 가상적국을 ‘러·미·중’ 이었으나, 2차 개정 시에는 가상적국이 ‘미·러·중’으로 변경되었다. 해군은 처음부터 미국 한 나라를 목표로 전쟁계획을 준비하였다. 한편 육군은 이때부터 대미작전을 계획하게 되었다. 국방에 요하는 병력으로서 육군은 40개 사단으로 1차 개정시와는 변화가 없었지만, 25년의 군축결과 실제 동원준비는 30개 사단 내외로 축소하였다. 해군은 군축의 결과 주력함 10척, 항공모함 4척, 순양함 12척과 보조병력으로 하였다. 후지와라 아키라, 엄수현 역, 『日本軍事史』, 서울: 시사일본어사, 1994, 170-171쪽.

3. 일본의 對美 해양전략 : 차단·소모(邀擊漸減, interception-attribution) 전략

가. 워싱턴 체제의 한계와 일본의 해군력 강화

1920년대 일본은 심각한 전후 공황에 빠졌다. 1921~22년 해군 군비지출은 정부 예산의 1/3을 차지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지속되었고, 산업현장의 파업과 노동 분규는 산업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³⁰⁾ 이처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일본은 국가의 생존은 아시아 대륙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이 동아시아에서의 헤게모니적 지위에 달려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같은 국내외적 불안한 안보상황 하에서 일본은 워싱턴회의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워싱턴 회의(1921.11.12.~1922.2.6.)는 해군 강대국들 간의 해군 군축과 동아시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① 태평양 도서에 관한 4국(미국·영국·프랑스·일본)조약, ② 해군군축에 관한 5국(미국·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 조약, ③ 중국문제에 따른 원칙과 정책에 관한 9국(미국·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포르투갈·중국) 조약 등의 3개의 주요 조약의 협정으로 이루어졌다.

제1회 총회의 의장이었던 미 국무장관 휴즈(Charles Evans Hughes)는 개막연설에서 3대 열강(영·미·일)이 현재 건조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력함 건조계획을 폐기하고, 10년간 주력함을 건

30) Emily O. Goldman, *Sunken Treaties: Naval Arms Control Between the Wars*(The Pennsylvania State Univ. Press, 1992), p.209.

조하지 말도록 하며, 주력함의 총 중량을 5(미국) : 5(영국) : 3(일본)의 비율로 유지하자고 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더 작은 양을 갖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휴즈는 1906년 이전에 건조된 드레드노트급 이전의 구형 함정의 폐기뿐만 아니라 빠르고 튼튼함 장갑에다 거포로 무장된 포스트 유틀란드급(post-Jutland)의 최신에 함정도 제거하자고 제안하였다.³¹⁾

1921년 12월 13일, ‘4국(미·영·프·일) 조약’이 체결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구 함정 다수를 폐기하고 건조 중인 모든 주력함 건조를 중지하는것은 찬성했지만 미일 양국의 세력비율에 대해서는 ‘대미칠할비율론(對米七割比率論)’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주력함 제한과는 별도로 태평양방어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의 카토 도모사부로 대사는 미국의 괌, 하와이, 필리핀의 요새건설과 영국의 상하이 및 싱가포르 지배, 그리고 일본의 팽후군도, 대만, 보닌제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Amami-Oshima) 섬 등에 대한 위임 통치 상황을 설명하면서 태평양의 남양제도 방어와 해군군축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태평양 위임도서에 대한 안보와 아시아 대륙에서의 정치적 불안정이 일본의 권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을 받기를 원했다.³²⁾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세력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휴즈는 미국의 경우 이미 3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여 80~90%의 건조 공정을 마친 15척의 주력함을 폐기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전함 무츠의 공정이 98%로서 아직 건조 중이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이 태평양과 대서양의 양 대양을 접하고 있기

31) Department of State, *Conference on the Limitation of Armament*(Washington D.C., 1922), pp.44-64.

32) Karen A. J. Miller, *Populist Nationalism: Republican Insurgency and American Foreign Policy Making, 1918-1925*(Westport: Greenwood Press, 1991), p.135.

때문에 미국 함대는 결국 양분될 수밖에 없고, 영국은 구주 열강과 인접해 있으며 전 세계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7할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1922년 2월 6일, 최종적으로 워싱턴에서 해군군비제한에 관한 5국 조약(The Five-Power Treaty) 및 중국문제에 관한 9국 조약(The Nine-Power Treaty)이 체결되었다. 5국 조약은 ‘즉각 중지(stop now)’와 비율제안에 대한 반발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타결되었다. 5국 조약의 목적은 5개국(미·영·불·이·일)이 평화 유지에 공헌하고 군비경쟁을 완화하는 것에 표면적인 목적이었다.

<표 1> 워싱턴 회의 5국 조약의 주력함 비율

구 분	미국·영국	일본	비율
전 함	525,000톤	315,000톤	5 : 3
항공모함	135,000톤	81,000톤	5 : 3

※ 출처: Department of State, Conference on the Limitation of Armament (1922).

앞의 <표 1>에서 보듯이 5국 조약의 타협안은 주력함 5(영):5(미):3(일) 비율로 건조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서명국들이 태평양 도서에 더 이상 기지를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파리평화회의(1919)에서 구 독일이 지배하던 태평양 도서에 대한 공식적인 지배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하지만 워싱턴 회의는 미일 간의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었다. 5국 조약에서 보조함 제외 문제는 이후 순양함 및 잠수함 건조 경쟁으로 나타남으로써 해군군비통제 회의에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다.³³⁾ 한편 일본은 워싱턴 체제 초기에는 조약파에 의한 자유주의적 군축론이 대세

33) Thomas H. Buckley, "The Icarus factor: The American pursuit of myth in naval arms control, 1921-36," *Diplomacy & Statecraft*, 4:3(1993), p.132.

를 이루었으나, 1926년부터는 워싱턴 회의 당시부터 존재했던 반 워싱턴 체제 세력인 함대와 세력이 권력의 전면에서 등장하여 일본 국내의 민주화 흐름을 차단하면서 미국의 현상유지에 대한 도전을 점점 더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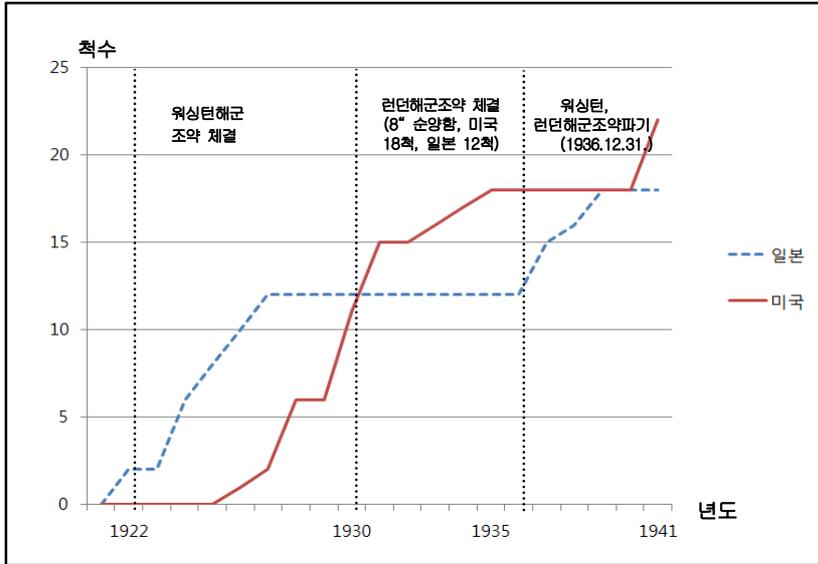
세계대공황(1929~1932)의 와중에 개최된 1930년 1월, 런던군축 회의(The London Naval Conference)는 보조함 분야에서의 해군 군축 회의였다. 여기서 일본은 워싱턴 회의 시 주력함에서의 열등함을 만회하기 위하여 보조함에서의 70% 비율을 주장하였다. 특히 일본은 중순양함이 일본이 생각하는 대미 전쟁계획에서 미국의 전투 함대를 거부할 수 있는 핵심적 무기체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8인치 포를 장착한 중순양함에서의 70% 비율을 요구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워싱턴 체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미일 간 보조함 분야에서의 해군력 경쟁은 지속되었다. 1929년 미국이 ‘15척 순양함 건조 법안(Fifteen-Cruiser Bill)’을 통과시키면서 1935년까지 10,000톤급 중순양함 23척 보유 계획을 발표하자, 일본은 중순양함의 70% 비율론을 주장하면서 6척의 구식 5,000톤급 중순양함을 10,000톤급 5척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런던조약에서 일본 해군은 원하는 만큼의 비율을 획득하는데 실패했다. 비록 미국에 비해 보조함 총 톤수에서 368,340톤(69.75%)의 비율을 획득하는데 성공했지만 이 모든 것은 일본의 해군 전략에 중요하지 않는 함정들이었다.³⁴⁾

34) 런던해군조약은 주력함에 대한 대체함의 기공 연기, 주력함의 처분, 항공모함의 정의의 확장, 1만톤 이하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포 구경에 관한 규정, 수상보조함 및 잠수함 기준 배수량 결정방법, 보조함 건조제한 기간, 순양함 및 구축함의 함종 정의, 보조함 보유량 할당 등 군사적 분야에 관한 합의만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런던조약 이후 일본은 미국의 해군력에 비해 80% 정도의 해군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미국은 1934년까지 조약의 한계까지 함정을 건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David C. Evans & Mark R. Peatti, *Kaigun: Strategy, Tactics and Technology in the Imperial Japanese Navy 1887-1941*, p.237.

<그림 1> 8" 중순양함 건조 척수



※ 출처: David C. Evans & Mark R. Peatti, Kaigun, p.236.

일본은 1934년 12월, 미국에게 워싱턴 조약 폐기를 통보하였고, 1936년 1월에는 런던 조약을 탈퇴했다. 그리고 1936년 11월, 일본은 독일 방공(防共)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워싱턴체제 밖에서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1937년 7월 중일전쟁, 그해 12월 남경대학살로 중국에 대한 침략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미국은 조약의 제한으로 태평양에서 더 이상 해상 기지를 획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태평양에서의 전략적 입지는 크게 약화되었고, 이러한 취약점은 항공모함의 개발로 적응해 나갔다. 이후 일본은 태평양에서의 기득권을 바탕으로 미국의 침략에 대비한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었다.

나. 對美 공격전략 구상 : 차단·소모 전략(邀擊漸減作戰, interception-attribution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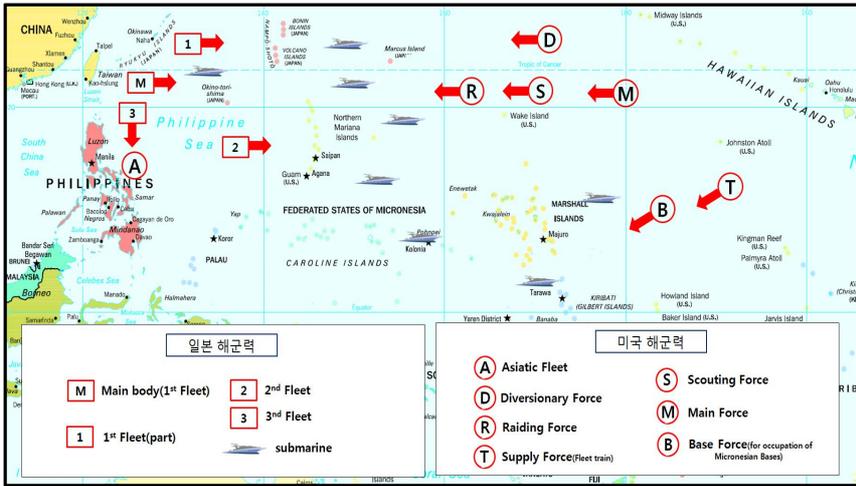
사토 테츠타로의 해양국가론을 시작으로 일본이 구상하였던 대미 해양전략의 핵심 개념은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열세한 일본 해군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운용하여 미국에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일본은 미 해군이 가지고 있는 태평양에서의 지정학적 취약점에 대한 분석과 일본의 첨단화된 해군력을 통해서 對美해양전략인 차단·소모전략을 구상했다. 이 전략은 일본이 확보하고 있는 해상 도 서기지 및 전투함정들의 작전반경을 고려하여 해상방어구역을 설정하고 접근하는 적을 소모전을 통해 축차적으로 공격하면서 적의 전력을 약화시키면서, 결정적 지점에서 함대결전을 통해 승리한다는 전략이다.

차단·소모전략은 러일전쟁 이후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1922년 워싱턴 조약으로 일본의 8·8함대 계획이 무산되기 이전까지는 일본의 대미전쟁계획은 주력함의 결전을 핵심으로 하는 차단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후 기술발전에 의해 함포, 어뢰 등 해상 무기 체계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의 플랫폼이 워싱턴 조약에서 제외됨으로써 일본은 새로운 해군전술을 발전시켰다. 이 전략이 1930년에 공식화된 차단·소모전략이다.

차단·소모전략은 4단계로 디자인되었다. ① 개전 시 필리핀에 주둔해 있는 미 해군의 함대를 격파하고 육군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필리핀의 광과 루손섬을 봉쇄하여 점령함으로써 아시아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미 해군의 전력을 약화시킨다. ② 잠수함을 미 태평양 함대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에 전개시켜 미 해군의 함정을 감시·정찰하고, 미 함정이 출항한 경우에는 이를 추적·격파하여 미 해군의 전력을 감소시킨다. ③ 일본이 통치하고 있는 남양제도(마리아나제

도, 캐롤라인제도, 마셜제도)의 도서 기지에 해군항공기를 배치하고, 미 함대가 일본이 설정한 해상방어구역에 진입하면 항공모함의 함재기를 이용하여 공중공격을 통해 미 해군력을 약화시킨다. ④ 적 함대가 일본이 사전에 설정해 놓았던 결전을 위한 핵심 해역에 도착하면 순양함 및 구축함으로 야간공격을 감행하여 적의 함대를 공격하고, 이어서 여명 후에는 전 해상 전력을 집결하여 집중을 통해 결전을 수행함으로써 적을 격멸한다.³⁵⁾

<그림 2> 일본의 차단·소모전략(1925~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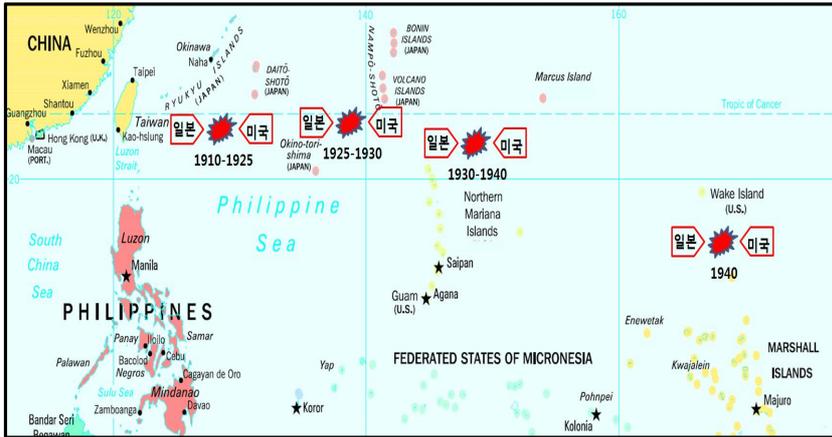
※ 출처: Mark A. Campbell, “The Influence of Air Power upon the Evolution of Battle Doctrine in the U.S. Navy, 1922-1941,”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Boston, 1992), p.46.

<그림 2>는 최초 차단·소모전략의 개념도이다. 일본의 주력함대인 1함대는 전함(9), 중순양함(2), 항공모함(2), 구축함 및 잠수함 전대(2)로 구성되어있고, 2함대는 다수의 중순양함, 어뢰전대

35) Rear Admiral Youchi Hirma, “Japanese Naval Preparations for World War II,” *Naval War College Review*, 44:2(Spring 1991), pp.63-64.

(2개), 잠수함 전대(2)로 구성되어 있다. 개전 초 1·2 함대는 연합함대를 구성하여 미 해군의 주력함이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류큐제도와 보닌제도 사이에서 함대 결전을 위한 준비를 한다. 결전은 약 개전 후 45일 정도로 판단했다. 그리고 연합함대에 속한 잠수함들은 이즈제도(the Izu Islands) 남쪽, 마살제도 서쪽에 배치하여 접근하는 미 함대를 정찰·공격하는 임무를 맡고, 2 함대는 보닌제도 동쪽에서 야간 어뢰공격을 준비한다. 한편 어뢰전대, 잠수함전대, 경순양함 전대로 구성된 제 3함대의 임무는 필리핀에 주둔해 있는 미국의 아시아 함대를 공격하고, 일본 육군의 필리핀 상륙을 지원한다. 일본 해군은 제 3함대의 필리핀 지원 작전이 약 3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미국 주력함과의 결전이 약 4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필리핀 지원 후 제1함대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3> 일본의 해상방어공간의 확대(1910~1940)



※ 출처: Mark A. Campbell, "The influence of Air Power upon the Evolution of Battle Doctrine in the U.S. Navy, 1922-1941," p.48.

한편, 해군 군비경쟁의 심화, 무기체계의 발전, 워싱턴 체제의 붕괴로 인해 일본 해양전략 또한 변화되었다. 무기체계의 발전으로 해상플랫폼의 작전반경이 증가하여 해상방어공간이 동쪽으로 확대되었다. <그림 3>에서 보면, 미 해군과의 결전 지점이 최초 1910년에서 1920년대는 류큐제도 근해였던 것이, 이후 잠수함과 항공기의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1930년대 초에는 보닌제도 동쪽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30년대 중반에는 북마리아나제도와 보닌제도 사이, 1940년대에는 경도 160°E 상의 마셜제도까지 확대되었다.³⁶⁾

다음은 해양전략 개념의 변화이다. 일본의 해양전략은 <표 2>에서 보듯이 방어적 → 공격적 → 방어적으로 변화되었다. ① 미국에 본격적으로 도전(1930이전) 전에는 주력함에 의한 결전을 주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이 전략은 전체적으로 방어적 태세를 유지하고 공격은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³⁷⁾

② 도전기(1930~1941)에는 일본이 1936년 워싱턴 체제 탈퇴 후, 이전의 차단·소모 전략으로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달성할

36) Yoji Koda, "A Commander's Dilemma: Admiral Yamamoto and the 'Gradual Attrition' Strategy," *Naval War College Review*, 46:4(Autumn 1993) pp.68-69.

37) 일본 전략가들은 미국의 태평양 공격 루트를 4가지로 예상했다. ① 북쪽루트(진주만 또는 미국의 태평양 기지로부터 알래스카, 알류산열도, 쿠릴열도를 거쳐 일본으로 공격), ② 남쪽루트(남태평양의 미국, 영국, 프랑스 도서기지 이용 일본 공격), ③ i) 중앙루트(하와이로부터 보닌제도, 마리아나제도까지 직접 공격), ③ ii) 중앙루트(하와이로부터 남쪽의 길버트제도, 마셜제도, 투르크(Truk), 팜을 통과하는 공격) 등으로 판단했다. 이 중 북쪽루트는 거리상으로 가장 짧지만, 항상 기상이 좋지 않고 작전하기에 힘든 루트였다. 그리고 남쪽루트는 이동 거리가 너무 길어서 작전상 비효율적이었다. 따라서 최초 일본은 미국이 중앙루트를 통해서 공격해 올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국 또한 일본 전략가들과 마찬가지로 공격 시 2개의 중앙루트 중 어느 쪽으로 공격할 것인가에 대해, 신속한 기동으로 직접적으로 공격해 들어야 한다는 ③ i)번 루트를 주장하는 급진파(the thruster)와 일본의 적극적인 방위에 대비해 단계적(step by step)으로 진격해야 된다는, 즉 ③ ii)번 루트를 주장하는 신중파(the cautionaries) 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다. Edward S. Miller, *War Plan Orange*, pp.77-85.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개전 초기 단계부터 미국의 주력 함대를 선제 공격해야 한다는 전략으로 수정했다. 왜냐하면 전쟁 개시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미국은 엄청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군력을 증강 시켜 일본을 봉쇄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쟁에서 장기전으로 가면 일본에 불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워싱턴 체제 탈퇴 후 일본은 기존의 수세적인 방어적 전략을 포기하고, 분쟁 초기 선제 기습공격을 통해 미국의 주요 전력을 무력화시킨 후 일본의 방어력을 강화시키는 공세적 방어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것은 곧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으로 나타난 것이다.³⁸⁾

<표 2> 일본 차단·소모 전략의 변화

구 분	해양전략	형태
도전 이전기 (1930 이전)	수세적 방어 (defensive interception-attribution strategy)	워싱턴체제 (현존함대)
도전기 (1930-41)	공세적 방어(기습공격) (offensive interception-attribution strategy)	진주만 기습 (선제공격)
도전 이후기 (1941 이후)	수세적 방어 (defensive interception-attribution strategy)	필리핀 해전 (불침함모)

진주만 기습 시 일본의 차단작전은 ‘선제기습공격’이었고, 소모작전은 ‘우세전략(outranging strategy)’이었다.³⁹⁾ 우세전략은 미 해

38) 야마모토 이소로쿠를 필두로 하는 함대파에 의해 결정된, 공세적인 차단·소모전략으로의 전환은, 후에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일본이 공세적 작전으로 인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드웨이해전에서 패하였고, 과달카날 전투에서 어떠한 성과 없이 패배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들은 개전 초 일본은 ‘방어할 수 있는 경제 공간(defensible economic sphere)’을 확고히 구축했어야 했고, 위험한 공격작전은 회피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즉 일본은 현존함대(fleet in being) 전략을 추구했어야 했다고 주장한 의견도 있었다. Rear Admiral Youchi Hiram, “Japanese Naval Preparations for World War II,” p.76.

39) 필리핀 해전에서 일본은 함재기의 장점을 이용하여 미국의 공격 범위 밖에서 함재

군력과 비교에서, 양적인 열세를 질적인 우세로 전환시키고자 한 일본의 소모전략으로써 전함의 함포 사거리, 산소어뢰,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핵심수단으로 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미국의 전투함보다 긴 함포 사거리, 미 전투기보다 더 넓은 작전 반경의 해상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1941년 건조된 60,000톤급의 일본의 야마토(Yamato)와 무사시(Musashi)이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전함이었고, 18.1인치의 포를 장착하였고 사거리가 40,000m였다. 그리고 사거리가 긴 산소어뢰를 개발하였다. 또한 제로전투기(the Zero)와 같이 외부 장갑을 줄여 약 1,900마일을 비행할 수 있는 전투기의 개발하였다. 일본 함재기(350~400마일)는 미 함재기(200마일)보다 작전반경이 더 넓었고 일본의 초계기(500마일) 또한 미 초계기(350마일)보다 작전반경이 넓었다. ③ 하지만 일본의 도진(1941년 이후)은 전쟁이 경과될수록 미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뒤쳐져 결국 수세적 방어로 전환하였다.

4. 미국의 對日 해양전략 : 오렌지(Orange)·레인보우(Rainbow) 계획

가. 지정학적 인식에 기초한 對日 공격전략의 디자인 : 오렌지 계획의 탄생

2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국가방위를 위한 구체적인 군사

기를 출동시켰으나, 너무 먼 거리로 인해 실질적으로 미국의 주요 함대에 도달한 함재기는 몇 척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 잠수함은 총 36척이 작전에 투입되었으나, 그들 중 단지 16척이 기지로 복귀하였다. Rear Admiral Youchi Hiram, *Ibid.*, p.72.

전략이 부재했었다. 남북전쟁(1861~1865) 시에는 임시 회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용했고, 미서전쟁(1898) 시는 ‘임시 전략위원회(a temporary strategy board)’에서 전쟁계획을 작성하였다.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 후 미국은 태평양에서 미국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전쟁계획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등장한 것이, 1884년 설립된 ‘해군대학(NWC: Naval War College)’에서 위계임을 최초로 시작한 것과, 1900년 3월 30일 워싱턴 D.C.에 설립된 ‘일반 위원회(GB: General Board)’였다.⁴⁰⁾

이 두 조직은 태평양 전략 수립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역할을 하였다. 미국의 부의 원천은 해상 무역이고, 강력한 함대와 해상 전진기지의 구축을 주장했다. 미국이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의 사용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며 전쟁의 목적은 완전한 승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두 조직에 의해 대일전쟁계획인 오렌지 계획(1906)이 탄생하였다.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최초의 생각은 1897년 6월, 미 해군대학의 국방위원회(the Board on Defenses)에서 제출된 ‘스페인과 일본과의 전쟁(War with Spain and Japan)’ 이란 제목의 짧은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다.⁴¹⁾ 다음은 1900년에 엘리트(John M. Elicott) 해군 중위가 해군대학에 제출한 보고서인, ‘일본의 해양력(Sea Power of Japan)’이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이 미래 미국

40) 미 해군대학에서는 처음에는 대서양에서 영국과의 분쟁, 카리브해에서의 위기시 대응 등을 위계임으로 실시하였다. Michael Vlahos, “The Naval War College and the Origins of War-Planning against Japan,” *Naval War College Review*(Jul.-Aug. 1980), pp.23-30.

41) 이 보고서에서 미국과 일본의 목적은 하와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비록 일본이 미국 서부해안까지 침략하지는 않을 것으로 가정했지만, 일본은 석탄 연료를 위해서 알류산 열도나 미국 워싱턴 주에 있는 푸젯섬(the Puget Island) 등을 일시적으로 점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Board on Defenses, “War with Spain and Japan,” Record Group 8, *UNOpB, Naval War College Historical Collection*, pp.8-9.

의 잠재적 적국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고 향후 일본 해군력이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평가하였다.⁴²⁾

<표 3> 미국의 3단계 對日 공격전략

구분	내용
1단계 (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일 간 개전 초, 일본은 서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기지를 신속히 점령할 것이다.
2단계 (공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해군의 태평양 진출의 지정학적 취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양의 지리적 특성(광대함)은 미 해군전력의 공세적 기동 제한 - 하와이와 아시아 대륙 사이 중간 해상 기지 부재 ● 미 해군의 일본 해상방어선 돌파, 미 해군의 일본 소유 도서기지 재탈환. 전진 기지를 구축, 해상교통로 보호, 일본의 해상교통로 차단 ● 미 해군전력의 3가지 태평양 횡단 계획 ① 아시아에 해군 전진기지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루손), 괌 등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여 분쟁발생 시 본토의 미 함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유지 목적 - 미국 내에서의 정치적 지를 획득 실패, 워싱턴회의(1922)시 거부 ② 신속 기동전략(the through ticket strategy) : 단기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발발시 중간 경유지 없이 신속히 필리핀으로 함대 기동 - 태평양의 지리적 변수(거리)를 간과한 전략으로 판단 ③ 단계적 접근 기동전략(step by step strategy) : 장기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양 섬들 중 전략적 가치가 있는 도서들을 요새화하여 축차적으로 전진하는 전략 - 태평양의 지정학적 특성을 잘 반영한 전략으로 평가 - 미국의 공식적인 전략으로 채택됨(1934)
3단계 (봉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태평양에 성공적으로 전진기지 구축 후 일본 본토로 진격 ● 해상 봉쇄작전을 통해 일본 본토 공격 후 승리

* 출처: Edward S. Miller, War Plan Orange: The U.S. Strategy to Defeat Japan, 1897-1945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pp.33-37 재구성.

한편 오렌지 계획의 기초가 된 것은, 1906년 미 해군대학 회의에서 제기된 ‘미일 간 전역 관련 질문(Questions Relating to the

42) John M. Ellicott, “Sea Power of Japan.” Record Group 8, *JN, Naval War College Naval Historical Collection* (1900), p.23.

Campaign Between Blue and Orange)’에서였다. 여기서 나온 질문과 답변들이 오렌지 계획의 초안이 되었다.⁴³⁾ 미국의 첫 번째 공식적인 전쟁계획 문서는 1906년, 일반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에(In Case of Strained Relations with Japan)’란 문서였다. 이 문서에서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 동안 미 해군의 전략을 다음의 6가지로 제시했다. ① 전진기지포위, ② 해상에서 일본 전투함대의 격파, ③ 일본의 봉쇄와 경제적 고립, 해상통상로 파괴, ④ 일본 통치하에 있는 미국 식민지의 재탈환, ⑤ 팽호 제도에 있는 일본 군항의 탈환, ⑥ 일본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고립 등을 제시했다.⁴⁴⁾

이 6가지의 전략을 기본 개념으로 해서 앞의 <표 3>에서 보듯이 3단계 대일공격전략 즉, 오렌지 계획을 디자인했다. 미국은 1단계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태평양에 대한 지정학적 취약성으로 인해 분쟁 초기 필리핀은 일본에 의해 점령될 것으로 판단했다. 미군 2만명이 방어하고 있는 필리핀은 일본군 20만명에 의해 쉽게 함락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미군은 필리핀의 요새화에 대해 강력히 주장했지만, 미 행정부는 이를 거절했고, 1922년 워싱턴 조약은 필리핀의 요새화를 금지 시켰다. 1930년대 들어서 일본의 우수한 항공력의 출현은 미국의 필리핀 방어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 실제적으로 태평양 전쟁 초기 필리핀 마닐라는 3주만에 함락되었고, 미국은 필리핀을 방어하는 대신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섬에서 호주까지 연결된 도련선인 ‘말레이 장벽(Malay Barrier)’을 방어해야 했다.

2단계는 미 해군의 태평양 횡단에 관한 계획이다. 미국의 태평양 공간에 대한 지리적인 취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43) General Board, “Conference of 1906. Solution of Problem,” Record Group 12, *Naval War College Naval Historical Collection*, pp.1-5.

44) GB 1906 Plan: General Board, “Confidential. In Case of Strained Relations with Japan,” Record Group 12, *Naval War College Naval Historical Collection*, p.3.

미국은 태평양을 기동하기 위해 3가지 방법을 검토하였다.

① 아시아에 해군 전진기지를 강력히 구축하여 분쟁 발생 시 미 본토에서 증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방어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필리핀과 괌 등의 핵심거점들을 포기하는 전략적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1908년, 미국은 필리핀의 수빅만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고, 대신 괌으로 방어선을 후퇴했다.⁴⁵⁾ 미 해군은 괌을 요새화시키는 것이 태평양 전략의 필수조건으로 판단하여 괌을 전진기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1910년 미 해군대학(NWC)에서 괌을 최우선적으로 요새화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한은 극동으로의 신속한 진격을 주장하면서 “괌은 태평양의 지브롤터로 간주하여 보호해야 한다. 괌을 요새화 시킨다면 하와이를 보호할 수 있고, 필리핀을 구하기 위해 진격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일본을 정복할 수 있다”⁴⁶⁾고 하였다. 1914년 미 해군은 괌을 핵심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일본의 해상교통로를 차단시키고 보닌제도와 류큐제도에 요새화된 일본 기지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였다. 1917년에는 괌에 대형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를 건설해야 하고, 일본의 공격으로부터 수개월을 버틸 수 있게 요새화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⁴⁷⁾

45) 괌은 마닐라로부터 1,510마일, 도쿄로부터 1,360마일 떨어져 있었다. 이러한 괌의 지리적 위치가 가지는 이점 때문에 일본은 괌을 해양방어선의 핵심 거점으로 판단했고, 미국은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잠재적 공격 거점으로 판단했다. 과거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 시, 하와이에서 필리핀까지의 5,000마일 항해 거리의 중간 연료 재보급 기지로써 괌을 활용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의 대안으로 괌의 전략적인 가치가 증대되었다. 1905-06년 미 해군은 괌에 5,000톤의 석탄을 적재할 수 있는 선적장을 만들었다. William Reynolds Braisted, *The United States Navy in the Pacific, 1897-1909*(New York: Greenwood Press, 1969), p.219; Earl S. Pomeroy, *Pacific Outpost: American Strategy in Guam and Micronesia*(New York: Russell and Russell, 1970), pp.24-25.

46) Robert Seager II, *Alfred Thayer Mahan: The Man and His Letter*(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77), p.485.

47) Edward S. Miller, *War Plan Orange*, p.71.

하지만 태평양 해양전략의 핵심 전진기지로써 괌의 요새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미 해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22년 워싱턴 조약 19조는, 경도 180도 서쪽의 필리핀, 괌, 웨이크, 서알류산열도의 군사기지화를 금지시켰다. 1938년 워싱턴 조약이 파기된 후 미 해군은 다시 한번 괌을 전진기지화 시키려고 하였으나 정치적 요인에 의해 미 행정부는 거절하였고 결국 괌을 요새화하지 못하고 태평양 전쟁을 맞이한 것이었다. 필리핀에 이어 괌을 포기함으로써 미국은 서태평양의 군사적 방어선을 하와이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가장 큰 전략적 실수였다.

② ‘신속기동전략’은 일본과의 분쟁 초기 미 해군 전력을 신속히 필리핀으로 기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태평양에 요새화되어 있는 일본 도서기지들에 의해 포위될 수 있고, 중간 기착점 없이 태평양을 횡단하겠다는 계획은, 태평양 횡단에 대한 거리적 변수를 간과한 계획이라는 평가에 의해 결국에는 채택되지 못했다.

③ ‘단계적 접근기동전략’은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태평양의 핵심적인 도서기지들을 차례대로 점령하여 일본 본토를 완전히 포위하겠다는 전략이다. 태평양의 지정학적 특성을 잘 고려한 전략으로 평가를 받았고, 1934년에 공식적인 전략으로 채택되었으며 오렌지 계획의 핵심 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 이후 오렌지 계획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1919~1941년까지 미 해군대학에서 실시한 총 318건의 위게임 중 136건이 해전과 관련된 것이었고, 이 중 127건이 대일 전쟁 게임이었다.⁴⁸⁾

48) Michael Vlahos, “Wargaming, an Enforcer of Strategic Realism: 1919–1941,” *Naval War College Review*, 39:2(Mar.–Apr. 1986), pp.17–18.

나. 對日 해양전략의 진화 : 레인보우(Rainbow) 계획의 탄생

1934년 워싱턴체제 탈퇴 이후 일본은 국가 동원법 통과(1938), 대만에 해군기지 건설(1938), 중국 하이난섬 점령(1939), 대만 통치령의 난사군도(the Spratly Islands) 점령, 일·러 상호불가침 조약 체결(1941), 일본 제국회의의 ‘제국국책요강(Outlines of fundamental national policy)’ 채택을 통한 남방진출 승인(1941) 등 남방 진출을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미국은 워싱턴 체제를 통해 현상유지를 추구하고자 했으나 일본의 공세적이고 확장적인 정책에 대해 해군력 증강이란 공세적인 전략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1934년 3월, ‘제1차 빈슨-트라멜(the Vinson-Trammel)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조약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해군력을 확장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은 미 해군력 증강계획으로 5년 간 구축조약에서 결정된 허용한도의 구축함 65척, 잠수함 30척, 항모 1척, 해군항공기 1,184척을 1942년까지 생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929년부터 진행되어왔던 순양함 6척 건조를 추가로 승인하였다.⁴⁹⁾

1938년 2월, 미 육·해군에 의해 기존의 오렌지 계획은 ‘합동오렌지계획(Joint War Plan Orange)’으로 수정되었다.⁵⁰⁾ 육군은 알

49) Louis Morton, *Strategy and Command: The First Two Years*(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62), p.72.

50) 미 육군은 해군의 공세적인 오렌지 계획에 대해 반대를 했었는데 이같은 내부적인 갈등은 육군과 해군과의 서로 다른 문화적인 차이점 때문이기도 했다. 해군은 작전반경이 크기 때문에 항상 신속한 기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반면, 육군은 본토 방어라는 주 임무 때문에 작전반경이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은 공세적인 성향을 보이고, 육군은 수세적인 성향을 보이는 각 군 특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정체성이 각 군의 전략을 형성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를테면 미 육군은 알래스카-하와이-파나마를 연결하는 핵심해양공간 내에서 전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을 태평양 군사전략의 목표로 설정해야 된다고

래스카-하와이-파나마를 연결하는 해상방어공간 내에서 전력 사용을 구상했고, 해군은 태평양을 기동하기 위한 작전 계획을 준비했다. 해군은 일본의 완전한 패배라는 공세적인 작전을 구상했고, 육군은 태평양에서의 점진적인 진격, 육군 병력과 항공기의 제한된 투입을 계획했다.

1938년 5월, ‘제2차 빈슨-트라멜 법안’을 수립하였다. 이 법안은 미 해군 함대 세력의 20%를 증가시키는 법안으로써, 1938년 미 의회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미국 해군을 확장했다. 69척의 함정을 더 건조할 수 있게 되었고, 총 400,000톤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항모 8척, 순양함 48척, 주력함 24척 등 총 190만 톤의 함정과 항공기 약 3,00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⁵¹⁾

1939년 5월 11일, 미 합동위원회(JB) 산하 합동기획위원회(JPC)는 미국이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삼국동맹(일·독·이) 국가들에 의한 동시적인 위협을 가정하여 전쟁계획을 구상하게 된다. 1939년 합동기획위원회는 태평양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계획인 ‘레인보우-1(Rainbow-one)’ 계획을 수립하였다. 합동위원회는 미국이 방어할 수 있는 서반구(the Western Hemisphere)의 범위를 대서양의 서경 30도에서 태평양의 하와이, 알류산열도, 웨이크섬 등을 포함하는 동경 150도까지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독일의 유럽 침공(1939. 9월), 프랑스 함락(1940. 6월) 등의 독일침략 전쟁으로 영국이 독일의 침공으로부터 오래 버틸 수 없

하였다. 한편 미 해군은 태평양에서의 공격을 핵심 임무로 설정해야 하고, 이러한 목표에 따른 해군력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미 해군의 목표는 일본의 패배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 해군의 행동의 자유가 완벽히 보장되어야 하며 완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 해군의 관점에서 육군의 임무는 적을 파괴하기 위해 병력과 전투기를 제공해주는 것이었다. Robert Greenhalgh, *Makers of Naval Policy, 1798-1947*(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80), p.171.

51) Akira Iriye, *The Origins of the Second World in Asia and the Pacific*(London: Longman, 1987), p.63.

다고 판단하여 미국이 방어할 수 있는 서반구의 범위를 확장한 ‘레인보우-4(Rainbow-4)’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케이프 혼(Cape Horn)까지 방어구역을 확장시키고, 모든 전투함과 항공기를 캐리비안 해로 전개시켰다. 한편 태평양에서는 방어구역을 미드웨이에서 알래스카의 우날래스카(Unalaska)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령의 폴리네시아 섬까지 제한시켰다. 1940년 5월, 합동위원회는 ‘레인보우-4’를 완성했고, 동년 8월 루스벨트는 승인했다.⁵²⁾ 하지만 미국에 대한 일본의 도전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은 더 이상 방어적인 계획인 ‘레인보우-1·4’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940년 9월, ‘레인보우-1·4 계획’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1939년 봄, 합동위원회는 ‘레인보우-1·4’의 수세적인 전략대신 공세적인 성격의 ‘레인보우-2·3(Rainbow-2·3)’ 작전계획을 수립한다. ‘레인보우-2’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아니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신속히 서태평양의 제해권을 확립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다. 기본 계획은 영국·프랑스·네덜란드와 협력을 통해서 일본에 대응한다는 전쟁 계획이다.⁵³⁾

‘레인보우-2’ 작전계획 수립 시에도 미 육·해군 간 이견이 있었다. 육군은 동남아시아의 전장에서 연합군 병력 215,000명, 항공기 381기, 순양함 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 남방에서부터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해군은 ‘레인보우-2’ 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미 전력이 필리핀에 도착하기 전 일본은 이미 인도차이나, 보르네오 유전지대로 진출하고 필리핀을 점령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아시아에 전개되어 있는 영국 전함은 3척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방어가 취약한 네덜란드

52) Louis Morton, *Strategy and Command: The First Two Years*, pp.70-73.

53) James R. Leutze, *Bargaining for Supremacy: Anglo-American Naval Collaboration, 1937-1941*(Chapel Hill :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77), p.176.

령의 섬들을 점령하여 싱가포르를 쉽게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은 전쟁 발발 후 신속히 해군력을 아시아에 전개시키지 않는다면 말레이시아를 회복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미 함대가 남지나해까지 전개된다면 일본 해군은 태평양의 섬들을 더 요새화 하고, 하와이를 지나 미 서부연안까지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된다면 아시아에 있는 미 군사력의 일부는 동태평양의 방어를 위해 투입되어야 하며, 이것은 곧 아시아지역에서 미 해군이 일본 해군에 대한 상대적 우세를 유지할 수 없다하고 주장했다.

1940년 4월, 미 합동기획위원회는 ‘레인보우-2’ 계획을 발표했다. 함대의 임무가 일본의 남방진출을 저지하는 제한된 역할과 보르네오 유전지대 근해의 제해권 확보로 수정되었다. 그런데 1940년 5월, 유럽에서는 독일이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점령하였고 영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계획의 기본 전제인 태평양에서 연합작전은 실행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1940년 10월, ‘레인보우-2’ 계획은 폐지되었다.

유럽에서 발발한 독일의 침공은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에서의 연합작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은 독자적으로 일본을 상대해야만 했다. 이같은 변화된 안보상황은 ‘레인보우-3(Rainbow-3)’ 계획을 탄생시켰다. 이 계획의 개념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대서양을 방어하고, 미국은 태평양에서 독자적으로 일본을 상대한다는 것이다.

‘레인보우-3’는 ‘레인보우-2’와 ‘오렌지 계획’을 혼합한 형태의 전쟁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전쟁 초기 북 인도차이나, 싱가포르, 필리핀 등이 일본에 의해 함락되고 ‘말레이 장벽(the Malay Barrier)’은 동맹국의 전력에 의해 가까스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계획하였다. 그리고 하와이에 미 해군력을 집결시켜 아시아로 기동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목적은 아시아에 함대를 증강시켜 말레이 장벽을 방어하고 보르네오 유전 지역까지 일본의 진출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하

지만 아시아 함대의 강화는 하와이까지 형성되어 있는 미국의 해상 방어선을 넘어가는 것이었고, 함대 전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작전적 제한사항들이 있었다. 결국 1941년 1월, 루스벨트는 ‘레인보우-3’의 승인을 거절했다.

이러한 와중에 1940년 6월 14일, 미 의회는 11%의 함대 증가분이 추가로 포함된 ‘제3차 빈슨-트라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942년까지 함정 22척(총 167,000톤) 건조, 항공기 1,500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어서 1940년 7월 19일 통과된 ‘제4차 빈슨-트라멜 법안’은 미국 함대가 70%가량 증강되는 것을 허용했다. ‘두 대양 해군법안(Two-Ocean Navy Act)’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1946년까지 항모 18척, 순양함 29척, 전함 7척, 구축함 115척, 잠수함 42척을 증강시켜, 함정 257척(총 132만 톤), 항공기 15,000대를 확보한다는 법안이었다.⁵⁴⁾

유럽에서 독일의 위협은 미국으로 하여금 태평양과 대서양의 양면 전선 형성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해서 증대시키고 있었다. 태평양 섬들을 단계적으로 점령하면서 점진적으로 진격한다는 미 해군의 ‘단계적 접근 기동전략’은 양면전선의 형성으로 봉쇄를 걱정하고 있는 미국에게 ‘윈-윈(win-win) 전략’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1940년 11월 12일, 작전사령관 스타크(Harold R. Stark) 제독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이시기 가장 중요한 전략 문서이자 후일 ‘레인보우-5(Rainbow-5)’의 원형이 되는 ‘플랜 D(Plan D)’를 보고했다.⁵⁵⁾ 이 계획은 유럽 우선 정책이고 태평양 방어전략이다. 먼저 미국 주도로 유럽에서 독일을 패배시키고 이 임무가 종료되면, 태평양에서 대일본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유럽이 안정화될 때까지 태평양에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동태평양을 방어한다는 전략으로,

54) “Ship Building 1933-1945, Roosevelt, Franklin D.,” [http://www.globalsecurity.org/html\(2021.3.1.\)](http://www.globalsecurity.org/html(2021.3.1.)).

55) Edward S. Miller, *War Plan Orange*, p.270.

이것은 곧 전쟁 초기 서태평양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기도 했다. 합동위원회는 이 계획을 인정했고, 루스벨트 또한 암묵적으로 승인하게 된다.

이후 12월, 미 해군은 임시적인 태평양 해양전략인 ‘WPL-44(War Plans of Office of the Chief of Naval Operations-44)’를 수립한다. 이 계획은 ‘레인보우-3’ 계획을 발전시킨 방어전략으로써 미 해군의 준비증강을 추진하고, 일본에게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제제재, 동맹선포, 중국에 대한 무기 지원 등과 같은 조치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이 계획은 ‘레인보우-5’ 계획에 흡수되어 미국의 태평양 해양전략으로 발전하게 된다. 1940년 12월 7일, 지난 35년간 유지되어 왔던 미 해군의 공세적인 오렌지 계획은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1941년 봄, 미 해군은 유럽에서 영국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던 해군 전력의 대부분을 대서양으로 전개시킨다. 이 결정은 동남아시아에서의 ‘레인보우-2,3 계획’을 무력화시켰고, 태평양 함대의 세력은 이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대서양에 대한 전력의 집중은 태평양에서 일본 해군력에 대해 상대적 열세함으로 나타났다.

이후 미국·영국·캐나다는 1941년 3월 ‘ABC-1’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합동기획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결과를 ‘레인보우-5’ 계획으로 전환시킨다. 1941년 6월 2일, 루스벨트는 ‘레인보우-5’ 계획을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승인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한다. 루스벨트가 이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못한 이유는 영국이 유럽의 독일 우선 정책에는 동의했지만 태평양에 대한 계획, 특히 싱가포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⁵⁶⁾

56) 미국과 영국은 1941년 3월 29일 ‘ABC-1’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에서 싱가포르와 다른 기지들에 대한 합동 방어를 주장하는 영국과 태평양의 방

‘레인보우-5 계획’은 공식적으로 폐지될 때(1946. 3월)까지 제2차 세계대전 시 미국의 전쟁계획으로 이행되었다. ‘레인보우-5 계획’이 루스벨트에 의해 승인되는 순간 이전의 모든 계획(오렌지 계획, 레인보우-1,2,3,4)은 그 효력을 상실했다. ‘윈-윈 전략’과 ‘마한의 집중의 원칙’을 핵심으로 한 유럽 우선 공격, 태평양 방어 작전계획인 ‘레인보우-5 계획’은 지상군 공격을 통한 독일 패배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고, 대서양에서 미 해군의 임무는 해상교통로 보호였다.

한편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주 임무는 전략적 방어 임무였다. 극동지역에 전개한 미군은 추가적인 해군의 지원 없이 스스로 버텨야 했다. 태평양함대는 서태평양을 포기하고 동태평양을 방어해야 했고, 일본의 통상을 차단시키고 투르크 섬까지 단계별 공격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항공력 지원은 제한되었고 만약 유럽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항공지원을 대서양으로 전한시켜야 했다. 즉 태평양 전쟁은 1943년 1월, 힘의 중심이 유럽에서 태평양으로 전환되기까지 제한전이었고 방어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5. 결 론

20세기 초 아시아의 신흥 해양강국으로 등장한 일본은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추구하기 시작하였고, 태평양 지역에서 현상유지를 추

어 전략을 주장하는 미국과의 14차례의 회의를 통해 완성되었다. 핵심 내용은 경제적 제재와 태평양에 미 함대 전력의 전개를 통해 일본의 남방 진출을 억제하는 태평양의 전략적 방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ABC-1’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1941년 4월 말 미국, 영국, 네덜란드는 싱가포르에서 회의를 가졌고, 회의 결과 삼국동맹 국가들과의 전쟁 시 합동으로 군사적 대응을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계획은 더욱더 발전하여 중국을 포함한 ‘ABCD’ 국가들의 연합으로 발전시켰다. James R. Leutze, *Bargaining for Supremacy: Anglo-American Naval Collaboration, 1937-1941*, p.176.

구하고자 했던 미국은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이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였다.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했던 미일간 경쟁은 해군력 경쟁으로 발전했고, 결국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다. 양국간의 해군력 경쟁은 아·태지역에서 어떻게 해군력을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야기시켰고, 이것은 일본의 對美 해양전략인 ‘차단·소모전략’과 미국의 對日 해양전략인 ‘오렌지 계획 → 레인보우 계획’의 해양전략 경쟁으로 발전하였다.

<표 4> 전간기 美·日 간 해군력 경쟁 비교

연도	일본	미국	비고
1897	-	· 일본과의 전쟁 가능성 최초 대두	미 해군대학
1900	-	· 일본을 미래 잠재적국 평가	미 해군대학
1906	-	· 잠재적국 : 일본(공식적) · 오렌지계획 수립	미 일반위원회
1907	· 제국국방방침 수립	-	-
1911	-	· 제1차 오렌지계획 개정	-
1918	· 제1차 제국국방방침개정 · 남태평양 진출	-	일본: 핵심해양 공간 진출 시작
1919	-	· 제2차 오렌지계획 개정	-
1923	· 제2차 제국국방방침 개정 (미국 : 제1가상적)	-	워싱턴체제 (1922)
1924	-	· 제3차 오렌지계획 개정	-
1929	-	· 제4차 오렌지계획 개정	-
1934	· 워싱턴조약 폐기 통보	· 제1차 빈슨-트라벨 법안	해군력 증강계획
1936	· 제3차 제국국방방침 개정 · 런던조약 탈퇴 · 독일방공협정 체결	-	일본: 워싱턴 체제탈퇴
1938	· 차단-소모전략 수립	· 제5차 오렌지계획 개정 · 제2차 빈슨-트라벨 법안	-
1939	-	· 레인보우-1 수립	미국: 공세적 해양전략 전환
1940	-	· 레인보우-4 수립 · 레인보우-2,3 수립 · 제3차 빈슨-트라벨 법안 · 제4차 빈슨-트라벨 법안	-
1941	진주만기습	· 레인보우-5 수립	-

<표 4>는 전간기 동안 미일 간 해군력 경쟁의 발전을 비교분석한 표이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 아시아국가 최초 해양강국으로 성장하여 남태평양으로 진출하였다. 1922년 워싱턴체제에 가입했으나, 미국을 제1의 가상적으로 간주하고 조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조약에서 제외된 잠수함, 상륙함, 보조함 등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켰다. 1936년 워싱턴조약 탈퇴 후 일본은 해군력증강을 계속하였고, 이를 위한 해양전략인, 차단·소모전략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1941년 진주만 기습을 일으킨 것이다.

한편, 미국은 20세기 들어 일본을 공식적인 잠재적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오렌지 계획을 수립하여 대일 전쟁계획을 구체화시켰다. 일본의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은 일본이 워싱턴체제를 탈퇴(1936) 함으로써 나타났다. 1938년 미국은 해군력 증강을 위한 빈슨-트라멜 법안을 통해서 해군력을 증강시키기 시작하여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였다.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취약성은 미국으로 하여금 공격적인 패권추구보다는 현상유지 정책을 통한 국익 추구를 요구하였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미국의 태평양 지역의 해양전략은 워싱턴체제란 수단을 통해서 수세적 해양전략 기조를 유지하고 했다. 한편 미국의 대일전쟁계획에서 가장 큰 전략적 실수는 필리핀, 괌 등 남양제도의 포기였다. 미서 전쟁 말기 독일이 마샬제도, 캐롤라인제도, 마리아나제도 등을 합병했을 때, 미국은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었던 독일함대를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제도를 점령하지 못했고,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남양제도를 일본이 접수했을 때도 미국은 그 지역 섬들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일본에게 양보하였다. 그리고 1908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필리핀 수빅만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고 하와이로 전진기지를 후퇴하였던 것이다.

미국의 오렌지·레인보우 계획과 일본의 차단·소모 전략과의 대결에서 미국이 승리하였다. 20세기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의 경쟁

에서 승리한 미국은 태평양 지역의 패권국으로 자리하였다. 또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전략 수립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① 태평양 지역 전진도서기지의 중요성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태평양 해양전략 수립에 있어서 가장 큰 전략적 실수는 태평양의 도서들을 일본에게 양보한 것이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 발발 후 일본이 설정한 해상방어공간을 돌파하는데 엄청난 군사적 손실을 입었던 것이 사실이다. ② 태평양이란 거대 해양공간을 어떻게 신속히 기동할 것인가이다. 미국에게 있어서 태평양이란 해양공간은 장애물이다.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여 신속히 아시아로 도착할 것인가의 문제가 미국의 태평양지역 해양전략의 핵심이다. 전진도서기지의 확보와 강력한 동맹국의 협력이 미국의 지정학적인 취약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일 수 있다.

21세기 태평양 지역에서는 20세기의 일본을 대체해서 중국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이것은 곧 미중간 해군력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해양전략의 경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미국은 아·태지역이란 공간적 범위를 넘어서 인도·태평양이란 확장된 공간을 통해서 중국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봉쇄를 시도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 중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통해서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의 역사와 역사적 경험은 태평양이란 지역에서의 경쟁은 해양공간을 통한 해군력 경쟁의 양상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태평양이란 해양공간을 통제할 수 있는 해양전략이 태평양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군사전략인 것 같다.

(원고투고일 : 2021. 3. 15, 심사수정일 : 2021. 5. 13, 게재확정일 : 2021. 5. 28.)

주제어 : 해양강국, 해양전략, 차단·소모전략, 오렌지 계획,
레인보우 계획

<참고문헌>

정호섭, 『해양력과 미일 안보관계』,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1.
<http://uci.or.kr/G701:B-00047960222>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2019 주변국 해군 편람』, 계룡: 전평단, 2019.
E. H. Carr, 박종국 역,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육문사, 2007.
<http://uci.or.kr/G901:A-0006151313>

후지와라 아키라, 엄수현 역, 『日本軍事史』, 서울: 시사일본어사, 1994.
<http://uci.or.kr/G901:A-0008373957>

Board on Defenses, “War with Spain and Japan”, Record Group 8,
UNOpB, Naval War College Historical Collection,

Braisted, William R., The United States Navy in the Pacific,
1909–1922.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1.

Cummings, Bruce, Dominion from Sea to Sea: Pacific Ascendancy and
American Pow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0.

Department of State, Conference on the Limitation of Armament,
Washington D.C., 1922.

Dexter, Byron, “Clausewitz and Soviet Strategy”, Foreign Affairs, 1950.
<http://doi.org/10.2307/200330813>

Ellicott, John M., “Sea Power of Japan”, Record Group 8, JN, Naval
War College Naval Historical Collection, 1900.

Evans, David C. & Peatti Mark R., Kaigun: Strategy, Tactics and
Technology in the Imperial Japanese Navy 1887–1941.
Maryland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7.

Fiske, Bradley A., “American Naval Policy”, Proceedings, 1905.

Friedman, Norman., Battleship Design and Development, 1905–1945,
New York: Mayflower Books, 1978.

GB 1906 Plan: General Board, “Confidential. In Case of Strained
Relations with Japan”, Record Group 12, Naval War College

- Naval Historical Collection, 1906.
- General Board, “Conference of 1906. Solution of Problem”, Record Group 12, Naval War College Naval Historical Collection, 1906.
- Goldma, Emily O., *Sunken Treaties: Naval Arms Control Between the Wars*. The Pennsylvania State Univ. Press, 1992.
- Greenhalgh, Robert, *Makers of Naval Policy, 1798–1947*,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80.
- Hammond, Jr., James W., “We are Products of 1898”, *Proceedings*, 1998.
- Herwig, Holger, “Luxury” Fleet: The Imperial German Navy 1888–1918,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80.
- Hirama, Youchi, “Japanese Naval Preparations for World War II”, *Naval War College Review*, 1991.
- Hopf, Ted, “Polarity, the Offense–Defense Balance and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991.
- Hutchens, Michael E. et al.,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A New Joint Operational Concept,” *Joint Forces Quarterly*, 2017.
- Iriye, Akira, *The Origins of the Second World in Asia and the Pacific*, London: Longman, 1987.
- Iriye, Akira, *Power and Cultu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James, D. Clayton, “American and Japanese Strategies in the Pacific War”, Peter Paret, ed., *Makers of Modern Strategy: From Machiavelli to the Nuclear 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 Koda, Yoji, “A Commander’s Dilemma: Admiral Yamamoto and the ‘Gradual Attrition’ Strategy”, *Naval War College Review*, 1993.
- Leutze, James R., *Bargaining for Supremacy: Anglo–American Naval Collaboration, 1937–1941*, Chapel Hill : The University of

- North Carolina Press, 1977.
- Luttwak, Edward N., *Strateg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 Maurer, John H., “Arms Control and the Washington Conference”, *Diplomacy & Statecraft*, 1993.
- Meinig, D. W., *The Shaping of America: A Geographical Perspective on 500 Years of History. Vol. 3, Transcontinental America, 1850–1915*,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8.
- Miller, Karen A. J., *Populist Nationalism: Republican Insurgency and American Foreign Policy Making, 1918–1925*, Westport: Greenwood Press, 1991.
- Morton, Louis, *Strategy and Command: The First Two Years*,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62.
- Musicant, Ivan, *Empire by Default: The Spanish–American War and the Dawn of the American Century*, New York: Henry Holt, 1998.
- Pelz, Stephen E., *Race to Pearl Harbo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 Pomeroy, Earl S., *Pacific Outpost: American Strategy in Guam and Micronesia*, New York: Russell and Russell, 1970.
- Preston, Antony, *Battleship of World War I: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he Battleships of All Nations, 1914–1918*, New York: Galahad Books, 1972.
- Sadao, Asada, “From Washington to London”, in Erik Goldstein & John Maurer, ed., *The Washington Conference, 1921–22: Naval Rivalry, East Asian Stability and the Road to Pearl Harbor*, Routledge, 1994.
- Sadao, Asada, “The Revolt against the Washington Treaty: The Imperial Japanese Navy and Naval Limitation, 1921–1927”,

- Naval War College Review, 1993.
- Seager II, Robert, Alfred Thayer Mahan: The Man and His Letter,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77.
- Shy, John. “Jomini,” ed. Peter Paret, Makers of Modern Strategy: From Machiavelli to the Nuclear 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 Tiezzi, Shannon, “What Did China Accomplish at the Belt and Road Forum?”, The Diplomat, 2017.
- Vlahos, Michael, “Wargaming, an Enforcer of Strategic Realism: 1919–1942”, Naval War College Review, 1986.
- Vlahos, Michael, “The Naval War College and The Origins of War–Planning Against Japan”, Naval War College Review, 1980.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Confluence of the Two Seas”, Speech by H.E.Mr. Shinzo Abe, Prime Minister of Japan at the Parliament of the Republic of India(August 22, 2008),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pmv0708/speech-2.html> (2021.2.23.).
-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2021.2.23.).
- “Pentagon Drops Air Sea Battle Name, Concept Lives On”, [http://news.usni.org\(2021.2.22.\)](http://news.usni.org(2021.2.22.)) “New US Concept Melds Air, Sea and Land”, [http://www.defensenews.com\(2021.2.22.\)](http://www.defensenews.com(2021.2.22.)).
- “Ship Building 1933–1945, Roosevelt, Franklin D.”, [http://www.globalsecurity.org/html\(2021.2.26.\)](http://www.globalsecurity.org/html(2021.2.26.)).

佐藤鐵太郎, 『帝國國防史論(上)』, 東京: 原書房, 1979.

(Abstract)

The Competition of Naval Power between U.S.-Japan in the Pacific Ocean during the Inter-War Period

Jung, Gwang-ho

This article analyzes the competition of naval power between the U.S. and Japan before the outbreak of the Pacific War in the early 20th century. Japan, which emerged as a new maritime power in Asia in the early 20th century, began to seek hegemony in the Pacific region, whereas the United States, which sought to maintain the status quo in the Pacific region, recognized Japan's move as a challenge to the United States.

The U.S.-Japan competition, which took place in the Pacific region, developed into a naval superiority competition, and eventually the Pacific War broke out in 1941. The naval power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raised the question of how to operate naval forces in Asia-Pacific, which developed into a maritime strategy competition between Japan's "interception-attribution strategy" and the U.S. war plan "Orange" → war plan "Rainbow" against Japan.

After the end of World War I, Japan became the first Asian maritime power and advanced to the South Pacific ocean. Japan joined the Washington regime in 1922, but considered the U.S. as the first virtual enemy and continued to build submarines, landing ships, and auxiliary ships which were exceptional maritime arsenals from the treaty. After terminating from the Treaty of Washington in 1936, Japan continued to strengthen its naval capabilities and developing a maritime strategy(interception-attribution strategy).

Meanwhile, the U.S. began to recognize Japan as an official potential enemy in the 20th century, and developed an orange plan against Japan.

The real perception of Japan's threat came as Japan's withdraw from Washington Treaty(1936). In 1938, the U.S. began building up its naval capabilities through the Vinson-Tramel Act to enhance its naval power, and responded to Japan's naval capabilities. The U.S. won over Japan in the maritime strategic level.

Keywords : maritime power, maritime strategy, interception-attribution strategy,
war plan orange, war plan rainbow